

“북핵 용납 안돼... 도발하면 대가 치러야”

朴대통령, 潘총장과 회담... 대북 인도적 지원에 공감

미국을 방문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추진하려는 것은 북한의 핵을 용납할 수 없고 북한이 어떻게 도발하고 위협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상은 앞으로 있을 수 없으며, 도발을 하면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유엔본부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가진 면담에서 “하지만 북한이 올바른 길을 택하면 지원도 하고 협력해 공동번영의 길로 나가도록 최대한 힘을 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북한 도발과 관련해서는 사실 저렇게 가면 계속 고립되고, 더구나 북한에서는 핵도 보유하면서 경제도 발전시키겠다는 병진노선을 걸으며 하는데 그것은 사실 양립할 수 없는 불가능한 목표”라고 지적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북한이 국제사회가 인정을 하는, 또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모습으로 나온다면 얼마든지 유엔을 비롯해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힘을 합쳐 공동발전의 길을 갈 수 있는데 자꾸 반대의 길로 가기 때문에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북한 비핵화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도발시에는 강경대응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동시에 지금이라도 도발을 중단하고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옳은 길을 간다면 자신의 대북정책기조인 신뢰프로세스를 통해 대북지원에 나설 수 있음을 감하게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박 대통령은 “북한의 영유아, 취약계층 격정을 많이 하는데 저도 주민에 대해서는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유엔과 같이

힘을 합한다면 투명하게, 꼭 필요한 주민에게 지원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미국 CBS방송과의 회견에서도 “북한이 도발을 한다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을 직접 대면할 의향이 있는가. 어떤 메시지를 전하겠는가”라는 질문에 “북한은 변해야 된다”며 “그것만이 북한이 살 길이요 발전할 수 있는 길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뉴욕에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과 면담하고 미 CBS 방송과 인터뷰를 한 뒤 JFK 국제공항을 출발, 워싱턴 인근의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곧바로 알링턴 국립묘지와 한국전 참전기념비로 차례로 이동해 6·25 전쟁 당시 한반도에서 목숨을 잃은 참전용사들의 묘에 헌화하고, 넋을 위로했다.

박 대통령은 7일 백악관에서 이번 방미의 하이라이트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하고 60주년을 맞은 양국 동맹의 발전 및 대북 대응의 공조 방안, 양자간 실질협력 확대, 동북아와 범세계적 협력 방안 등을 협의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를 계기로 ‘코리아 세일즈’도 본격화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공식 수행 중인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6일 브리핑에서 “보잉과 커티스 라이트(Curtiss-Wright), 올모스트 히어로즈(Almost Heroes LLC) 등 7개 미국 기업으로부터 3억9800만 달러 규모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다.



미국을 방문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오전(현지시간) 유엔본부를 방문, 반기문 사무총장을 접견, 악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순태 칼럼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리기 전, 민주당 국회의원 한 분이 내게 메일을 보내왔다.

제발 안철수와 민주당 이야기 좀 그만 하라는 내용이었다. 지금 민주당이 쇠신을 위해 진통 과정을 겪고 있으니 조용히 그 결과를 지켜봐달라는 것이었다.

소설가가 정치에 참여하거나 필요 이상의 관심을 갖는 것을 좋지 않게 생각하는 필자로서는, 정치 이야기라면 하는 것도 듣는 것도 싫다. 그러나 작가는 시대의 방향을 읽는 환자이고 그 작품을 투병기와 다름없다는 말이 있지 않은가.

작가가 시대를 꿰뚫어보기 위해서는 당대의 정치적 변화를 읽을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지금은 김학철 의원이 민주당 대표로 당선되고 안철수 의원 신당창당설이 무성한 판국이라, 정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정치라는 생물체는 계속 자극을 주어 긴장시켜야만 탄력을 얻어 세포분열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화법을 깨고 확실하게 로드맵 준비를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타이밍을 놓치면 현상은 안개처럼 사그라져버릴 수도 있다.

안 의원이 마냥 먼 곳만 바라보고 있으면 그를 껴안아주는 온갖 말들만 난무하게 될지도 모른다.

안철수 의원과 민주당을 보는 호남민심은 어떤가. 호남 사람들은 60년 전 통의의 민주당에 대한 뿌리 깊은 애증을 갖고 있다.

사랑하기 때문에 미움도 있다. 그러기에 민주당의 분해는 원치 않는다. 김대중·노무현 두 대통령을 탄생시켰다는 자부심도 크다. 민주당이 더 강해져서 5년 후를 기약할 수 있는 정당으로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그러나 아직은 리더십도 켈로우십도 부족하다. 당대표를 바꾸고 조직을 개편하는 것만으로, 실망과 함께 돌아선 민심을 쉽게 되돌릴 수는 없다.

안 창당후 민주당과 합당?

민주당 전당대회 결과를 친노와 호남의 몰락이라고 한다. 총선과 대선패배 책임을 준엄하게 묻고 중도개혁이라는 당의 이념에 대한 수정의 요구 결과로 받아들여진다. 암튼, 전당대회가 끝나자 세간에는 다시 안철수 의원 민주당 입당설과 신당창당설이 난무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비주류가 당대표가 된다면 안철수 의원이 입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견했다. 서로 이념적 코드가 맞고 경쟁적 동맹관계라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윤여준 씨는 안의원이 민주당에 입당하는 것은 자살행위와 같다면서 입당을 경계했다.

아직 계파갈등에서 헤어날 수 없는 상태에서 입당하면 화학적 융합이 불가능한 결과 2의 손학규가 될 것이라고 관망하는 사람들도 있다. 민주당이 쇠신되지 않은 마당에 필마단기(匹馬單騎)로 입당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신당창당인가? 신당 창당은 필연적으로 야권분열을 가져오게 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비생산적일 수 있다.

자칫 제2의 문국현이 될 위험 부담도 있다. 그러나 정치계산법으로 따져보면 안철수 의원은 호남의 지지세를 얻고 있기 때문에, 태생적 뿌리가 약한 창조한국당의 전철을 밟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제 안 의원은 모호한 정치적

여기서 새로운 시나리오를 생각할 수가 있다. 안 의원이 신당을 창당하여 새 정치의 추동력(推動力)을 얻은 다음 어느 정도 세를 확보하여, 화려한 카펫을 밟고 리모넬이 끝난 민주당과 합당하는 수순이다. 합당할 경우 그 폭발력은 대단할 것이다.

시기는 지방선거와 보궐선거가 끝난 다음이면 좋다. 합당하여 총선과 대선을 치른다면 매우 희망적이다.

합당 후, 친노와 반노의 계파를 초월하고 정치적 구심점을 확보하여 집권 가능한 차세대 주자를 키워나가는 것이다. 구심점의 중앙에 안철수 의원이나 박원순 시장, 또 다른 인물을 생각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잠룡(蟄龍)과 잠룡(潛龍)이 수면 위로 확실하게 떠오르게 될 것이다.

대기대용(大機大用)이라는 말이 있다. 정치는 가변성이 많기 때문에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안 의원은 두 번째로 관도라의 상자를 열 때이다. 제우스의 관도라도 불구하고 관도라는 결국 호기심 때문에 상자를 열었고, 순간 불행의 씨앗들이 세상으로 퍼지게 되었다. 관도라가 놀라서 문을 닫아버린 상자 안에는 아직 희망이 남아 있다. 이제 관도라가 닫아버렸던 상자를 다시 열어 새정치라는 희망의 씨앗을 꺼내어 확실하게 보여 줄 때이다. <소설가>

“동서통합 랜드마크 한려대교 조기 건설을”

전남대 이정록 교수 주장

영호남 화합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 공약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동서통합지대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서는 한려대교 등 상징성을 가진 랜드마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대학교 이정록 교수는 8일 전남발전연구원(원장 이근철) 주최로 광양월매리컨벤션에서 열리는 ‘심진강유역 개발구상과 과제’ 워크숍에 앞서 배포한 ‘동서통합지대 바람직한 조성 방안’이란 발제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수십 년 동안 각을 세운 영·호남이 벽을 허물고 공생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징적인 랜드마크가 될 한려대교를 조기에 건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려대교(예산 1조1770억원)는 여수 삼암동~남해군 남해읍 차산리 간 15.4km(해상교량 4.4km)를 4차 도로로 연결하는 다리이며, 현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진행 중이다.

이를 위해 이 교수는 “추진을 위한 제도(법령) 제정보다는 ‘사업시행’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면서 “심진강 양쪽에 워터프론트(Water Front) 공원형 사업을 배치해 문화·예술 관련 사업을 통해 양 지역의 문화적 동질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동서 통합경제권 육성이 가능한 산업별 클러스터 구축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정 지역에 머물지 말고 ▲여수, 광양, 순천 등지에 신소재, 철강, 화학 관련 클러스터를 구축 ▲하동 해양플랜트 관련 산업단지 ▲고흥, 사천 항공우주관련 산업 단지 ▲남해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단지를 조성하자는 것이다. /오영목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시 ‘동아시아 문화도시’ 유치전 본격화

정동채 전 장관 추진위원장 내정

광주시가 정동채 전 문화관광부 장관을 동아시아 문화도시 추진위원장으로 내세워(법령) 제정보다는 ‘사업시행’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면서 “심진강 양쪽에 워터프론트(Water Front) 공원형 사업을 배치해 문화·예술 관련 사업을 통해 양 지역의 문화적 동질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동서 통합경제권 육성이 가능한 산업별 클러스터 구축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정 지역에 머물지 말고 ▲여수, 광양, 순천 등지에 신소재, 철강, 화학 관련 클러스터를 구축 ▲하동 해양플랜트 관련 산업단지 ▲고흥, 사천 항공우주관련 산업 단지 ▲남해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단지를 조성하자는 것이다. /오영목기자 kroh@kwangju.co.kr

진행 중인 점을 부각할 방침이다. 광주와 함께 문화도시 유치 제안서를 접수한 부산·대구·전주·경주·부천 등 5개 도시도 프레젠테이션에서 경쟁한다.

‘문화도시’는 한·중·일 3국 사이의 문화 교류와 융합, 상대 문화 이해를 위한 거점 도시를 선정해 교류 행사를 개최하는 사업이다.

올해 나라마다 1개 도시씩 선정하고, 2015년부터는 장관회의가 개최되는 나라에서 1곳씩을 추가로 지정해 나가기로 지난해 3국 문화장관회의에서 합의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 하반기 한·중·일 문화장관회의에서 문화도시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삼희공인중개사

모든부동산 급매매

급매처분상담 경매공매압류 미준공건물

복잡한 권리관계에 있는 부동산 말소와 동시에 일괄매입

매수자 상담환영

법률/금융상담 동구 불로동 삼희빌딩 3층 234-1199 / 010-8730-3340

신뢰할 안내자를 만나면 인생이 즐겁습니다

신한공인중개사

신축원룸매매전문

- ★전대전문 1분 룠 147개 월수익 500만원 매가 7692천
- ★전대상대, 농대 1분 룠 147개 상가11개 월수익 500 매가 7692천
- ★전대전문1분 룠 21개 주택전환가능) 월수익 750만 매가 8944천만 전면대리석 벽돌시공 (보5천 중 2억5)
- ★전대전문 1분 룠21개 주택전환가능, 엘리베이터, 전 면대리석, 벽돌시공) 월수익 750 매가 8948천(보5천 중2억5천)
- ★쌍촌동 신축원룸 13개 월수익 500만 매가 5949천
- ★쌍촌동 원룸 16개 월수익 600만 매가 7693천

쌍촌동 역세권 토지매매

운천역 1분 코너 상업지 광동간도로점 820㎡ 매가 269억(병원·전시장·도시형)

수원지구 상가분양 임대전문

1층~7층 까지(695㎡) 학교·병원·독서실·모든입증가능
수원지구 1층 분양 59㎡ 매가 3966천(보3천 월140만)
수원지구 3층 분양 임대 280㎡ 매가 3933천(보3천 월180)

독서실 급임대

수원지구 3천세대 모이엘가 APT후문 2층 91석 최신식 시설 최고위치 보증금 5천만 월250 시바역간접임

☎062)527-7600
H.P. 010-6670-9800
경주광역시 광안구 수원동(국민은행 .LG전자역)

현대공인중개사

급한 매물 단시일 내 신속중개 -토지 건물

<토지매매>

- 소 재 지 : 광안구 산정동
- 면 적 : 14,172㎡ (구 4,287평)
- 용도지역 : 자연녹지.
- 지 목 : 잡종지
- 입지조건 : 대형차량진입 가
- 허용용도 : 공장, 창고, 병원 종교집회(창고, 성당)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정비공장 차고 및 주차장) 고물상 글프연습장 장례식장 복지시설(노인, 사회 근로)
- 매매조건 : 면적(분할가능) 및 가격은 상담 후 결정

<신축 상가 건물 임대>

- 5층 건물 - 3면이 도로
- 9월 준공 예정
- 상무지구 구형 오피스텔과 국민은행 사이
- 편장 용도 : 학원, 병의원, 사무실, 음식점, 커피전문점, 자동차 전시장, 사무실, 금융기관, 보험회사, 편의점, 기타업종

T. 062) 371-1900, 010-2006-0115
상무 우리병원에서 50m 지점 www.85858949.co.kr

부동산 성공 투자 하일땅 공인중개사 가 함께합니다

상가건물

- ▷ 상무지구 중심상업지 95억
- ▷ 첨단지구 중심상업지 19억, 30억, 70억

대지/전답

- ▷ 나주시 평산동 446-7 일대 배과수원 13,727㎡ (4,150평) 매매가 협의
- ▷ 신창동 창고용지(생산지) 1980㎡(600평) 매매가 협의
- ▷ 첨단·수원 상업용지 근린생활용지

수익형 구분점포

- ▷ 첨단 메인대로변 구분점포 150㎡ 매매 8.5억
- ▷ 첨단 중심대로변 복층 가능 1.2층 점포 400㎡, 710㎡ 임대
- ▷ 첨단 중심대로변 1층 상가 578㎡(175평) 임대 보10억 월 1,200만
- ▷ 첨단 메인상권 1층 구분상가 370㎡ 매매 35(임대대)

투자 유망 물건

- ▷ 풍암동 아파트 2층상가 124㎡(38평) 매매 2.4억
- ▷ 월산동 일반상업지 6층 건물 매매 14.7억
- ▷ 첨단 중심상권 2층건물 매매 18억(보1.5억, 월910만 포함)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문제 친절히 상담해드립니다.
☎광주 전남권 매도 매수 물건 접수 환영합니다 ☎

부동산 투자의 새로운 패러다임
하일땅 공인중개사 사무소
062)973-0045 010-5536-0382

최기철 공인중개사 사무소

- 매매 또는 교환물건 우선 접수 중!!
- 10억~100억 이상 급매물 대환영!!
- 경매공매 급매물 신속해결 비밀보장!!

= 상가 및 사무나(매매) =

- 첨단지구 월계동 현상업종인 무인텔매매 대지 338평 건평 440평 무인텔23실
- 동구 개림동 현상업종인 사무나 대지137평 건평810평(8층건물)
- 광안구 우산동 상가건물
- 대지 300평 건평 약 350평
- 상무지구 중심상업지역 상가빌딩 대지 501평 건평 1,415평 (5층건물)
- 상무지구 중심상업지역 상가빌딩 대지 150평 건평 885평 (7층건물)

최고의 위치와 수익률을 보장하는 주요지의 상가건물 다량보유하고 있음.

= 토지매매 =

- 광안구 광주에대 부근 대지4,000평 매매가 평당100만원 조정가능
- 상무지구 현대아파트 뒷 부근 대지400평 매매가 평당400만원 조정가능
- 상무지구 대도교변 최고 중심지역 대지550평 매매가 평당1,500~1,400만원
- 상무지구 우산동부근 대지 약1,000평 매매가 평당5000억 조정가능
- 북구 광주역부근 대지300평 매매가 평당5000억 조정가능
- (각 지구지역 토지 또한 대량 보유하고 있음)
- 전학점수 수 내방하시면 친절상담환영!!

☎ 956-6660 / 010-2139-6255 FAX. 956-6608

동원공인중개사 (상무지구 전문)

상가건물

- 상무지구 중심상업지 (7층) 보5944천,월3500만 매469억원
- 상무지구 중심상업지(5층) 보3억, 월2500만원 매399억원
- 상무지구 중심상업지(3층) 보3억, 월1200만원 매239억원
- 상무지구 중심상업지(5층) 보5억, 월4100만원 매809억원
- 광안구 수원지구(5층) 보2억, 월1390만 매279억원
- 광안구 신창동(5층) 보2억, 월1040만 매199억원

대지/답

- 금호동 계획도로점 자연녹지 3,400㎡ 매31억원 (병원,시육,정예예식장)
- 상무지구 중심상업지 960㎡ 매 369억원(병원,시육)
- 상무지구 중심상업지408㎡ 매 8945천(식당,유호초래방)
- 치평동 광송간도로 395㎡ 매14억(병원,시육,전시장)
- 마복동생산지 도로점 895㎡ 매가11억(식당,시육)
- 쌍촌동 운천역부근 상업지 845㎡ 매가25억 (시육,전시장,병원,도시형)
- 세종시 중심상업지 1715㎡ 매가62억(상가분양투자족)
- 상가건물, 나대지 급구

☎062-381-6001 010-3753-0033

원룸교환

두암동4층 원룸

대 지 324㎡
건 물 482㎡
14세대
매매가 5억1000만원
내·외부리모델링
응지없음
보증금 2억5100만원
월세160만원
월세전환시
보증금5600만원에
월세 455만원 가능
커피전문점 또는
타점포와교환가능

☎062-267-2006